

프랑스 건축사 제도의 어제와 오늘

The Past and Present of French Qualification System for Architects

송복섭 / 파리 8대학 박사과정
by Song Bok-Sub

1982년, 건축작품 뿐만 아니라 저술활동으로도 유명한, Claude Parent이라는 건축가는 《건축가, 사회의 어릿광대(L' Architecte, bouffon social)》라는 책을 펴내면서 그 첫머리에, 《이 책은 증오심으로 쓰여졌다. 그 증오심의 정도는 그동안 겪은 고통만이 증명하리라》고 썼다. 2001년 4월, Philippe Tr tiack란 젊은 건축평론가는 《건축가를 매달 필요가 있을까요?(Faut-il pendre les architectes?)》라는 책을 펴냈다. 거의 같은 시기 한국에선, 건축사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는 교도소에 가야만 하나?》¹⁾ 라는 글이 실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건축가들이 이런 글을 쓰게 되었을까?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건축가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공인되었는지, 각 시대에 따른 직업적 위기와, 그 위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는지를 알아보고, 현재에 논의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또 어떻게 경주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라 할수 있다. 비록,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건축가 직업 세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는 한국이나 프랑스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프랑스의 예가 한국의 현실을 반추해보고 나아가 발전적 모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주>

아카데미와 보자르학교의 구성: 건축가 직업의 사회적 공인화 과정

15세기 초부터 일기 시작한 건축가 직업에 대한, 일종의 학자로서의, 사회적 재인식운동은 16세기 초에 이르러 제자리를 찾기에 이른다. 이 시대는 이탈리아에 있어서 신플라톤주의가 문화 전반에 널리 퍼진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형이 사회를 창조한다》는 예술 예찬론과, 전천후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활동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건축가는 창조자로서의 신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술가로서 기능직공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은 이론적 작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세계에서도 조합을 구성하는 등의 구체적인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리하여 16세기 후반, 즉 1562년 Vasari에 의해 이태리 《회화 학술원(Accademia del disegno)》이 창설되고, 프랑스에서는 한세기 후인 1648년 루이 14세에 의해 《왕립 회화 조각 학술원(Acad mie royale de peinture et de sculpture)》와, 1671년 《왕립 건축 학술원(Acad mie royale d' architecture)》과 그의 《건축학교(Ecole de l' Acad mie)》가 창설되기에 이른다. 프랑스에서 이 일은 왕권강화를 위한 루이14세의 정치적 야심(교황으로부터 독립되는 강력한 프랑스 국가의 건설)에 의한 결과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축가는 하나의 독립 직업으로 공인된다.

물론, 모든 형태의 건축활동 또는 건축가가 공인된 것은 아니다. 아카데미를 통한 건축가와 그의 건축활동만을 공인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당시의 건축가들에게는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귀족 또는 국왕의 주문을 얻는 것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출세를 상징하였다. 이 아카데미 졸업생에게는 건축가 자격증이 주워졌으며, 일정의 연금과 경우에 따라서는 루브르궁에 마련된 숙소에 기거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반면에 그들에게는 《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기

1. 4월 23일자 장양순님의 글.



건축가 Visconti가 나폴레옹 3세 앞에서 루브루궁 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1865년, Jean-Baptiste Ange Tissier 작.

업활동을 하지 말 것) 등의 금지사항도 동시에 요구되었다. 이 아카데미를 통한 건축활동은 결국 왕권의 혜택을 입으면서 그 왕권을 견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는, 사회·정치적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들은 다시 두 급으로 나뉘어, 1급 건축가들에게는 개인적 건축활동이 금지되고 오직 국왕의 작업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고, 2급의 건축가들에게는 비록 주권이 제한되었지만, 반면에 개인적 기업활동이 허락되었다. 이 계급은 신분계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1급의 자리에 걸원이 생기면, 2급의 건축가가 기업활동을 포기하는 조건하에 1급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었다. 물론, 그 시대에 아카데미 출신의 건축가만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소위, 목수로 대표되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던 많은 건축가들이 있었다. 때때로 이들은 아카데미 출신의 건축가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등의 혈연관계 속에서 직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이 일련의 직업화 과정은 개인단위의 건축가에서 사회집단으로서의 건축가라는 직업의 사회적 공인화를 이루었다. 즉, 이후로는 아무나 건축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 과정과 자격검정을 통하여, 사회, 국가적으로 공인된, 일정한 사회 그룹만이 건축 직업활동을 유지한다는 직업원칙의 기틀을 닦았다.

산업혁명시대의 건축가와 자격증 논쟁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 후반은 한마디로 새로운 직업 시스템을 찾아 가는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산업혁명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엔지니어그룹과의 직업영역의 중첩과 혼동, 같은 건축가라 하더라도 전문분야의 차이에서 오는 위상의 차별화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직업적인 체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였다.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직업적 특별

함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건축가들의 노력은 조합을 구성하기 시작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미 1811년, 주로 공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건축가들이, 20명 이내의 회원제한이란 내규하에,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목적으로 《건축회(Société d'architecture)》란 단체를 구성하였다. 1829년 공업도시 리옹에서는 《리옹건축학회(Société académique d'architecture de Lyon)》란 단체가, 건축가란 자유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일반 기업인과 같은 세금 체제인 《영업세》가 적용되던 현실을 개탄하며 활동을 시작하였다. 1840년에 500명 회원 제한의 인원으로 세워진 《프랑스 중앙 건축가회(Société central des architectes français)》²⁾는, 1846년 이 영업세의 면제를 쟁취해냄과 동시에 대표적인 단체로 인식되었다. 이 단체는 이후, 국가공인 건축가 자격증 부여의 필요성과, 그 교육과 관련한 여론을 이끌어, 1847년 그 법정정을 제안하기에 이르지만, 그후 2월혁명에 의해 그의 실행이 연기된다.

혁명과 함께 1793년 문을 닫았던 아카데미와 건축학교는, 1795년에 다시 건축학교가 문을 열고, 1807년부터 《보자르 학교(Ecole des Beaux-Arts)》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이 보자르 학교의 건축가 자격증은 1867년 창안되어 1874년 법제화 되었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 9명의 지원자만이 이 자격증 심사에 참가한다. 그러던 것이, 《정부 공인건축가 친목회(Amicale des architectes diplômé par le gouvernement)》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이 심사에 참가하는 지원자가 늘게 되었고, 이후 이 단체는 《정부공인 건축가협회(Société des architectes diplômés par le gouvernement)》로 이름을 바꾸어, 1910년에는 1,000명 가입 축하파티를 열 정도의 규모가 되었다. 이 자격증의 법제화는 보자르 출신만을 국가공인 건축가로 인정하여 파벌을 조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하였다.

1895년 보자르 학교의 이론 교수였던 Julien Guadet는, 소위 Guadet법이라고 이후에 명명되는 글, 《건축가의 직업적 의무》에서, 《건축가는 예술가이다》라고 정의 한다. 이 관점은 같은 해 보르도시에서 열린 《건축가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원칙은 1977년 건축법을 제정하면서 다시 채택된다. 이 《건축가=예술가》라는 견해는, 20세기 초 여러 학생들과 건축가에게 영향을 끼쳐, 자격증 심사에 응하지 않을 태도를 취하게 하기도 하였고, 1933년 《밀라노 건축가 대회》에서 Auguste Perret는 《건축가가 예술가인가요? 그렇다면 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라는 발언

2. 1956년 이 단체는 '건축학회(Académie d'architecture)'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에도 활동중인 대표적 프랑스 건축관련 단체이다.

을 이끌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공건물 건축가 회장》이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자르 학교 심사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이미 대세는 자격증 필요론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 자격증 논쟁은 1880년대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여, 지방 건축가와 수도권 건축가의 대립을 낳았다. 빨리 보자르 출신이 아닌, 지방 건축가들은 수도 중심의 자격증 부여 제도에 반대하고, 오랜 협상 끝에 1903년부터 지방 보자르 학교를 창설한다. 또한 이 시기에 중앙의 건축가가 지방에서 대형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대립에 따른 건축에 있어서 지역주의의 사고가 일기 시작한다.

직업경쟁

건축가가 예술가라는 견해와 더불어, 건축가와 엔지니어의 직업영역 구분도 19세기말 20세기초 특히, 산업혁명의 중심시대에 큰 논쟁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빠리오페라》의 건축가 Charles Garnier는 《두 영역의 구분은 역사적 전통이 아니라, 최근에 생긴 일입니다. 철도 건설의 경우, 엔지니어가 철교, 육교를 건설하지만, 역사를 건축할 때에만 건축가에게 맡기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 논쟁이 건축가와 엔지니어 쌍방간의 논쟁이었다기 보다는, 건축가 쪽의 일방적 논쟁이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자신들만의 고유영역이기도 하였던 분야가 산업혁명이후에 새로 등장한 엔지니어 그룹에 의해서 점점 잠식되어 감에 따른 반동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후의 20세기는 건축의 예술성에 대한 논쟁이 건축공업생산, 합리화, 비용절감,



《정부공인 건축가협회》가 1906년부터 발행한 건축잡지의 표지 디자인. 건축현장을 총 지휘하는 건축가의 이상적 모습.

3. Florent Champy, *Les architectes et la commande publique*, Paris, PUF, 1998.

편리함등의 모더니즘 구호속에서 빛을 잃어갔고, 엔지니어와 손잡고 일하는 방식이, 전통적 건축 생산방식을 대체해가기 시작한다.

한편으론, 20세기 초엽, 도시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새로이 떠오른 직업, 도시계획가를 놓고 건축가와 기술자(엔지니어, 측량기사...)들이 모인다. 이 새로운 직업의 정의와 이론을 세우기 위해 1913년 설립된 《프랑스 도시계획가 협회(Société française des urbanistes)》가 세워진다. 건축가들이 다수였던 이들은, 《도시계획이 정부주도하에 장기적 예측속에서 작성되어야 하고, 개발이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며 활동을 전개한다. 1차대전을 거치면서 늘어난 도시계획가에 대한 수요는, 1919년 건축가 교육과는 별도의 도시계획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하고, 소위 도시계획가를 배출하기 시작한다. 2차대전후,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인력이 재건부(건설부의 당시 이름) 주도의 사업에서 활발하게 기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패권은 점차 건축가에게서, 특별 교육과정을 거친 도시계획가에게 옮겨지게 된다.

이때부터, 표준화와 산업생산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건축생산방식은, 건축가의 창조적 능력을 소외시키게 된다. 고전적 의미의 건축가들에게 진정한 건축이란, 구성의 조화, 입면의 아름다움등을 만족시키는 기념물이었다. 그들의 눈에 무질서한 도시개발, 미를 무시하는 대량생산 방식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대량건설 붐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엔지니어에게 내어 줄 수밖에 없었다.

이 직업경쟁에 관한 논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여, Florent Champy라는 젊은 연구원은 1998년 펴낸 책³⁾에서, 병원설계의 영역을 예로 들어, 병원 시스템 전문가들의 등장에 따라 점점 더 건축가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음을 밝혀, 건축가들 사이에 반항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건축사협회의 설립

193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건축가라는 칭호를 자신이 건축분야에 종사하기만 하면, 기업가나 엔지니어 할것 없이, 법적 제한이 없었으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각 건축가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를 막아 줄 것을 정부측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2차대전 중 독일점령하의 괴뢰정부인 비슈정부가 탄생하면서, 1940년 12월 31일의 법령에 의해 《건축사협회(Ordre d'architectes)》의 설립과 동시에, 건축학교 졸업생만이 건축가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호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건축가의 직업활동 독점권의 획득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이 협회의 설립과 함께, 그동안 건축가 칭호를 사용하던 비 건축 직업인들은 밀려났다. 각종 단체가 가담하지만, 그 중심은 역시 보자르 출신의 건축 귀족그룹이었다. 《정부공인 건축가 협회》는 건축가의 독점권 보장 조항의 삭제등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가입한다. 1942년 말, 가입회원수는 5,500명, 지원하지 않았거나 거절당한 건축가 수는 1,000명 내지 1,500명에 이르렀다. 1944년 가입인원은 6,725명이라는 회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해방후, 사협회의 존속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된다.

1968년 학생혁명

이미 60년대 초부터 《건축이 건축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나?》하는 물음과 함께, 도시계획, 새로운 건축 기술, 경제 및 인간과학등 건축의 영역을 재 정의해 보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보자르 학교로 대표되는 오랜 역사의 건축교육 시스템은 그 수구적 교육방법에 의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예쁜 도면을 위한 과장된 장식적 표현, 다소 황홀한 계획안의 추구 등이 당시에 비판되던 대표적 보자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수 세기에 걸쳐 테생위주로 교육되던, 건축교육에 있어서의 보자르의 독점은 곧 건축생산의 독점으로 이어졌다. 보자르 학교 교수들은 공공건축 주문을 독점하고, 그 밑에서 그들의 구미에 맞게 선발되는 제자는, 최고의 영예인 로마상(Grand Prix de Rome)을 획득함과 동시에 새로운 주문을 얻어가며, 다시 보자르 학교 교수가 되어, 또 보자르 구미에 맞는 제자를 양성하고 있었다.

2차대전 후부터 시작하여 고도 경제성장과 인구의 대량 도시유입으로, 부족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시간내에 건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바로 《대단지 주택(grands ensembles)》정책이었다. 주로 주택난 해결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이 정책은 곧바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주로 교외에 대단지 주택 위주로 건설됨으로써, 기반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도심에 위치한 직장 및 편의 시설로의 이동시간 증가, 역사적 연고없이 송두리째 옮겨진 새 환경에의 부적응 등이 그 대표적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이 도시문제 속에서 인간중심으로 계획되어야



《대단지 주택(grands ensembles)》정책의 대명사가 된 《Sarcelles 단지》

한다는 의식이 특히 학생과 식자층을 중심으로 확산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자르 시스템은, 1960년대 당시 연간 50만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상황에서도, 소위 《아파트건축》은 학교교육 대상이 아니라, 설계 사무소에서 건축다운 설계안을 수행하기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어쩔수 없이 하는 일이고, 관련된 문제들은 개발업자와 정부에서 해결할 일이지, 예술가로서의 건축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고, 결국 학생들과 대치되게 된다.

1966년부터 1968년사이에 수업거부등 여러 충돌이 있었고, 학생층에서 건의하는 개혁사항들이 학교 당국에 의해 받아 들여지지 않자, 일군의 학생들은 지도교수 없는 독자 아뜰리에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서민 주택관련 사회학자를 초청해 강의를 개최하는등 능동적인 행동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소규모 행동들은 그 한계를 보이고, 근본을 바꾸지 않고서는 개혁될 수 없다고 느낄 때 《68학생혁명》이 일어났다.

1968년 5월의 이 사건은 전통적 건축교육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이 개혁은 한마디로, 과거 왕립학술원의 유물이자 19세기초에 형성된, 고래한 교육시스템을 뜯어 고친다는 것이었다. 수세기 내려온 중앙 집권적 보자르 건축학교는 결국 문을 닫고, 빠리에 9개, 지방에 12개, 총 21개의 새로운 건축학교(Unité Pédagogique)가 생기게 된다. 이 새로운 학교는 대학시스템을 참조하여, 실기위주의 선발시험을 거치던 전례를 폐지하여, 대학 입학자격(Baccalauréat)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도시 계획, 사회과학분야등의 도입과 함께, 각 학교에 자율로 맡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⁵⁾

4. 《왕립 건축 학술원(Académie royale d'architecture)》이 창설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상설계를 개최하였는데, 1720년부터는 수상자에게 로마에 있던 《프랑스 학술원(Académie de France)》에 3년 4개월동안 체재하면서, 고대와 르네상스시대 작품을 연구할 수 있는 혜택이자 의무가 주어졌다. 프랑스로 보내지는 연구성과(주로 고대 기념물의 필사본)들은 매년 보자르학교에서 전시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유지하는 바와 같이, 주로 로마에 많이 남아 있던 고대 건축물의 규범과 디테일을 프랑스로 수입, 발전시키고자 했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이 로마상은 1968년 혁명 이후 폐지되었다.

5. 초기 각 학교의 교과과정은 매우 실험적이어서,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새로운 과목의 도입, 사후 평가등의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색깔을 개발하기에 이르는데, 이 직업들이 당시 대표적 건축잡지인 《오늘의 건축(L'Architecture d'aujourd'hui)》에 지상 중계되기도 하였다.

직업 독점권의 사회적 인정

1968년부터 착수하여 1973년 발표된 한 설문조사 보고서⁶⁾는 당시 널리 알려진 건축가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자신의 직업에 환멸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 놀라운 것은, 전후 재건사업과 대단위 주택 건설사업등으로, 돈을 많이 번 건축가들에게서도 같은 대답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유는, 자신이 건축가란 직업을 택 하면서 품었던 이상, 즉, 건축주의 주문을 받아서 창조자로 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건설하는 총 지휘자의 이미지와, 실제 작업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개발업자와 엔지니어의 점점 증대되는 개입에 따라 건축가의 업무가 하나의 부속작업으로 전락되어 버린 사실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의 건축주는 이미 예전의 고전적 건축주가 아니었다. 정부 또는 공기업등의 대 건축주가 각종 법규적 제한과 함께 대규모의 공사를 발주하기 시작하였으며, 개발업자, 건설회사, 건설관련 기술업체는 특히, 비용 절감이란 이유로 각종 규범을 강제하여, 건축가를 일개 도면작업만을 담당하는 설계사의 위치로 끌어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1960년대 들어,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건축가들 사이에서 일기 시작한다. 여러 단체가 각종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당시의 건축잡지는 그 상황을 게재하면서 여론형성에 들어갔다. 1963년 6월 24일에 있었던 《수도권 지역 건축가 조합(Syndicat des Architectes de la Seine)》에서 당시 회장이었던 Olivier-Pierre Lesné는 《진정한 건축 창작활동이 건축가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정당한 보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따라서, 우리 조합은 해결책을 모색하기위한 토론의 장이자, 정당한 정신적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정부와의 대화창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당시의 직업적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경주를 호소하고 있다. 68혁명은 이런 현실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고, 7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정책형성화 단계에 들어 간다.

1971년, 건축가의 신분과 관련한 법률이 발표되지만 건축가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1973년 다시 새 법률이 상원에 제출된다. 이 역시 건축가들의 압력에 의해 무효화 된다. 1975년 새 안이 제시되지만, 이번에는 건축가들의 대대적인 가두궤기로 이어지고 만다. 1975년 9월 23일, 건축사협회는 3,000여명이 참가하는 궤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은 대단히 예외적인 일로 기록된다. 다른

여러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반대운동을 하는 일은 종종 있었으나, 성격상 사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궤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그 시대를 위기로 보는 건축가들의 시각은 절박한 것이었다. 이후 이사건은 1977년의 관련 법 제정을 이끈다.

정부와 건축사협회, 그리고 프랑스 건축가 연맹의 협력이 있는 후, 1977년 새로운 법률이 공포되는데, 이 법은 건축가 신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향전환이 되었다. 주요골자는 우선, 《건축이 문화의 표현임과 동시에, 건축창작, 시공의 질, 주변환경과의 조화, 자연과 도시환경 및 유적의 보존은 공익임》을 정부가 공인한 점이다. 또, 이 법에의해, 《농업용 건물이 아닌 170m² 이상의 신축은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전체적으로 건축가의 직업 독점권이 허용되었다. 곧, 이후에는 건축학교를 졸업하여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아니면, 직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공론화한 것이다. 당시, 전국에는 22개의 건축학교가 졸업과 동시에 정부공인 건축가 자격증을 수여할 수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국립 스트라스부르그 응용미술학교》와, 사립으로는 유일하게 《건축특수학교(Ecole Spécial d'Architecture)》가 건축가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었다.

건축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은 2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독점권의 인정을 농업용이 아닌 170m² 이상의 연면적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197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하는 개인주택 건설붐의 혜택을 결과적으로 별로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점이다. (면적의 적고 많음이 건축 창작행위에서 중요한 척도가 되는가?) 두 번째는, 건축 허가신청을 건축사 협회 등록한 건축사의 서명을 필하도록 하였지만, 정작 서명 이외의 작업 범위에 대한 세부지침이 빠짐으로써, 타업종의 직업인(특히, 엔지니어)이 작업을 하고, 건축가는 서명만 빌려주어도 되는 상황을 묵과한 점이다.

현재의 논쟁점

1950년 148명, 1960년 267명이던 연간 공인 건축가(프랑스에서는 건축학교 졸업작품 심사에서 통과한 자) 배출수는, 1968년 이후 계속적인 증가를 거쳐, 1980년에는 무려 1,457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1960년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총 회원수는 8,300명, 1975년에는 10,300명, 1996년에는 26,500명에 달했다. 물론, 건축가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사람이 협회에 가입한다고는 볼

6. Raymonde Moulin외, *Les architectes, m tamorphose d'une profession libérale*, Paris, Calmann-Lévy, 1973.

수 없어서, 현재 유자격 건축가로는 35,000명에서 40,000명 가량으로 추정한다. 사협회 등록이란 곧, 자신의 사무소를 개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미등록 건축가는 대개가 다른 건축가에게 고용되는데, 조사자료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후 대개 2년에서 5년후에 자신의 사무소를 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930년대에는 자격취득후 35%가 남의 사무실에 고용되었었는데 반하여, 70년대 초에는 63%가 남의 사무소를 거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84년에서 1993년 사이 등록된 건축사무소는 9,590에서 13,344로 증가했지만, 3/4는 직원수 1명 내외를 거느린 소규모의 사무실이고, 등록 50%의 건축가는 연소득 100,000프랑(18,000,000원) 미만이며, 사무실의 독립은 대개가 일거리가 있을 경우에 행해진다고 한다. 1994년의 경우, 총 15,472 사무소 중, 9,469는 직원 없이 건축가 단독으로 일하고 있으며, 4,130 사무소는 1~3명의 직원을 두고, 204 사무소만이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0년대 이후에 늘어난 건축가의 수, 취업의 어려움, 수입의 침체 등의 원인은 특히 개업건축가들로 하여금 반동을 일으켰다. 1976년에 발표된 한 보고서는 졸업자에 관대하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건축학교를 비판하면서, 자격자 배출의 수를 줄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1987년의 다른 보고서는 그 수를 연간 800명으로 줄여 줄 것을, 1995년의 조사에서는 67%의 응답 건축가가 새로 배출되는 건축가 수의 제한을 요구하였다.

반면, 유사업종 및 타업종으로의 전직 또한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부서, 지방자치단체, 모형제작, 컴퓨터 관련분야(CAD, 그래픽), 산업디자인등의 분야로 향하는 것이 보고 되고 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경우 48%의 새 건축가가 독립된 사무실을 열었고, 20%가 다른 사무실에 고용되었으며, 17%가 공기업에, 11%가 사기업에, 18%가 다른 직업을 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두고, 어쩔수 없는 대안적 선택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건축학교 졸업생이 인접 타분야로의 진출은, 어찌보면, 건축의 분야를 넓히고 다양화하는 우리시대의 중요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는지도 모른다. 건축분야의 저변 확대는 그만큼 시장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가의 직업실태와 관련한 최근의 통계자

료는 대개가 비관적이다. 타업종에 비해 특히나 높은 건축가의 실업률,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난한 사무실, 힘든 취업...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는 강한 여론은 정부로 하여금 대책마련의 작업에 착수하게 하였다. 정부옹역에 의해 건축가들에게 맡겨져, 1998년부터 착수되었던 실태 조사는 그 결과가 2000년에 책으로 출판되었다.⁷⁾ 이는 곧, 정책대안 마련 작업에 들어 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마련 과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과 비교되는 점들이 있다. 하나는, 위의 예가 말해주듯, 정책의 입안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보다는, 관련 대상자에게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제안을 묻는다는 점이다(그것도 합당한 보수와 함께). 또, 프랑스에서는 고시 출신만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건축가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소위 《개방형 임용제》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행정 조직에 폭넓은 전문성을 제공하고, 실제 건축가 직업세계와의 원활한 의견제공을 가능케 한다.

70년대에, 건축의 제 위상을 찾기 위하여,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시끄러웠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문화의 일면을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특히 건축가들의 대응방식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어느날 프랑스 목사가 필자에게 물었다. 《왜 프랑스에서 파업이 많은 줄 아세요?》 《글쎄요, 그만큼 자유가 많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라고 대답하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뿌리깊은 권위주의적 전통이 그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카톨릭 문화(교황으로 정점이 모아지는 위계)를 바탕으로 하여, 오랜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주의는 모든 행정체계에 권위주의를 각인시켰다. 따라서, 밑으로부터 온건하게 건의되는 사항이 쉽게 받아들여 지기 어려웠다. 그래서 파업을 한다는 것이었다. 70년대에 있었던 건축가들의 일련의 행동들은 결국, 정부로부터 《건축이 문화다》라는 인식과 함께, 직업의 독점권을 쟁취해 내게 하였던 것이다.

맺는말

우리는 이상에서, 건축가란 직업이 오랜 세월 건축적 이상을 간직한 채, 변화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끈임없이 노력하였음을 살펴 보았다. 때로는 정치적 변화와, 때로는 기술

7. *Etre architecte, présent et avenir d'une profession*, Paris, Patrimoine, 2000.

과 효율 지상주의의 지배속에서, 때로는 인접 직업의 침입 속에서, 가끔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하였지만 자존심과 건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상의 역사적 사실은 분명, 남의 나라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견주어, 소위 '위기'로 표현되는 직업적 어려움에는 그리 많은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어려움의 해결방식이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우선 여론형성, 정책대안의 마련, 정책결정, 집행 및 평가의 순을 따르는데, 프랑스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론 형성과 정책대안의 마련에 건축가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수 있다. 이는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의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작업이 되는 것이다. 건축가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더 나은 건축문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필요 이상의 정부에 대한 적대감과 저항의식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정책담당자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연구해야 할 동료임을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문제해결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다.

다시, Claude Parent의 《건축가, 사회의 어릿광대》로 돌아와 보자. 그가 책을 어떻게 마무리하였는지 무척 궁금해진다.

《건축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여인을 짝사랑하듯, 바보같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사랑하려 하겠습니까? 건축주에 의해 멸시당하고, 대중에 의해 욕먹는 이 현실속에서...

남겨진 것은, 그 사랑의 이면, 증오를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권리를 막는 장애물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증오는 무관심이나 포기하는 것 보다 차라리 낫기 때문입니다.》

건축가의 권익 옹호와 보다 나은 건축환경 창조를 위한 운동으로써, 건축사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실제적으로 가장 큰 건축관련 단체이고, 유형, 무형의 커다

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운동보다는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운동이 기대된다. ㉮